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천주교 하와이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Hawaii

주님 공현 대축일

발행 천주교 하와이 한인본당
발행인 김영근 야고보
편집 하와이 한인본당 편집부

주소 2949 Kahawai St. Honolulu, HI96822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홈페이지 <http://hi.djcatholic.or.kr>

2018년 1월 7일(나해)
제 1894호



오늘의 미사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제1독서_이사야서 60,1-6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제2독서_에페소서 3,2,3-5-6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

복음_마태오 2,1-12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화답송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희망과 용기로 준비하는 예물



김민희 바오로
사목기획국장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도 세상 곳곳에서 평화와 일치, 사랑을 무너뜨리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를 슬픔과 불안에 잠기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려 오신 우

리의 빛이시고 큰 기쁨이십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오늘 여기에서 만나는 가난한 형제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작년 성탄 때 메일로 받았던 한 성탄 카드의 내용입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아가시는 수녀님들께서 보내신 뜻밖의 선물에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눈앞의 일들을 핑계로 소중한 인연을 잊고 사는 것이 오늘의 제 모습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를 무라고 말할 수 없듯이, 지금 나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선물로 맺어진 인연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지를 다시금 성찰하게 되는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별

을 찾습니다. 한쪽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한쪽은 선물과 함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 별을 찾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은 놀라면서도 끝까지 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별이 분명 참 빛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희망과 용기를 선택합니다.

교부 성 요한크리소스토모의 말씀처럼, 동방박사들은 그들이 별을 보았기 때문에 길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길을 떠났기 때문에 별을 보았습니다. 작가이자 그리스도인이었던 예이츠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생각은 머리가 아니라 몸 전체로 떠올린 생각”이라는 성찰을 남겼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 떠나는 희망과 용기를 간직한 사람만이 별을 보고 찾습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을 예물로 준비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사람이 기쁨과 영광을 얻습니다.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당신을 찾는 모든 이들의 갈망 안에서, 모든 가난과 소외의 현장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무디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든 이들 안에서 예물과 경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한 해, 교구 시노드 안에서 별빛을 새롭게 만나고, 우리 각자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바울이
(739)
유판식 토마스





바람에는 나이가 없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지만 생각보다 달라진 건 많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는 달력에 적혀있는 숫자처럼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도, 거울 보는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얼굴의 주름은 종종 마음까지 주름지게 하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문득 세상 모든 것들 중에 나이를 먹지 않는 것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바람’이 떠오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그 바람 말입니다.

바람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바람은 결코 주름진 이마를 갖지 않습니다. 태어난 듯 했는데 사라지고, 사라지는 듯 했는데 다시 태어나는 바람의 나이는 과연 몇 살 일까요?

올해는 바람과 닮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따뜻하거나 차가울 수는 있어도, 약하거나 강할 수는 있어도 멈추지 않고 살아 움직이는 그런 바람의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거울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거울 대신 하늘을 보며 바람을 느껴 볼 겁니다. 주름진 얼굴에 노심초사하기보다, 허공을 가르는 그 신비한 하느님의 숨결에 마음을 빼앗겨 볼 겁니다.

어른으로 성장하면서 숫자에 민감해지기 쉽습니다. 집은 몇 평짜리이고,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아들과 딸은 몇 등이나 하는지 남들과 비교하면서 불편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바람은 결코 그 수를 셀 수 없습니다. 숫자로부터 자유로운 바람을 안고, 나이를 잊은 채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이충무 바오로/ 극작가(건양대학교 교수)

<p>옥 치과</p> <p>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946-2785</p>	<p>동양관광여행사</p> <p>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p>	<p>브라이언 오토 바디샵</p> <p>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p>	<p>김남훈(베드로)CPA</p> <p>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p>
<p>New York Life</p> <p>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 차 그레고리오 / 226-3344</p>	<p>MYCOMP</p> <p>컴퓨터 수리 & 교육(그룹, 개인) 김효석(요셉) / 398-9695</p>	<p>최 니콜 부동산</p> <p>732-5004,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p>	<p>65세 이상 건강보험</p> <p>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203-7038</p>
<p>United Credit Education Service</p> <p>크레딧 교정, 복원 전문회사/무료상담 백승희(아나스타시아) / 931-9249</p>	<p>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p> <p>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p>	<p>아일랜드빈티지커피</p> <p>알라모아나/로얄하와이안 쇼핑센터 강호철 (바오로) / 941-9300</p>	<p>최현희(보나) 부동산</p> <p>부동산매매/상담 및 문의를 환영합니다 636-5217</p>

함께 나누고픈 좋은 글이나 후보관련 의견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kccmanoa@hotmail.com 한인본당사무실(988-6047)

성경 통독 안내 (준비물: 새번역 성경)
 시간 : 11시 5분 ~ 11시 25분
 오늘의 본문: 창세기 19장-22장
 통독 방법: 성경 본문을 펴시고 오디오 성경 속도에 맞춰 눈으로, 속으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철야기도 안내
 일시 : 1월 첫째 토요일 미사 후 8시~
 장소 : 솔렉 성당 강당
 지참물 : 묵주

구역협의 모임 안내
 일시 : 1월 첫째 주일 교중 미사 후
 장소 : 강당

아알라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9일(화) 오전 11시
 장소 : 채 헬레나 자매님 덕(381-2469)

와이키키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기아모쿠 참전용사관

가이무키 소공동체 모임 안내
 시간 : 1월 둘째 주일 오후 4시
 장소 : 교육관 독서실

주일학교, 한글학교 개강 안내
 일시 : 2018년 1월 7일부터

주일학교, 한글학교 안내
 2018년 1월 14일은 주일학교, 한글학교 수업이 없습니다.

운전 봉사자를 모집 합니다.
 담당자 : 흥 프란치스코 (836-5887)

지난 주(12월 30, 31일) 우리들의 정성(\$ 10,316)

주일헌금	교무금
\$ 3,032	\$ 1,390

*헌 금 : 토요 \$ 580 아침 \$ 628 교중 \$ 1,824
 *교무금 : 토요 \$ 240 아침 \$ 0 교중 \$ 1,150
 *미사책 \$ 199 *성소후원금 \$ 100
 *성물 판매 \$ 704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사

헌금	교무금
\$ 2,631	\$ 2,260

*헌 금 : 솔렉 \$ 756 교중 \$ 1,875
 *교무금 : 솔렉 \$ 200 교중 \$ 2,060

미사 시간 안내

마노아	•주일미사 : 오전 6:30, 11:30(교중 미사), 오후 3:00(청소년 미사) •평일미사 : 화요일 오후 7시, 수요일 오전 10시 •성 시간 : 첫 화요일 7시 미사 중
솔 렉	•주일미사 : 토요일 오후 7시 •평일

주임신부 : 김영근(야고보) [사제관 (808) 892-1480]
 ▪ 사 무 실 : 전화. (808) 988-9678 팩스. (808) 988-6047
 이메일. kccmanoa@hotmail.com

- 예비자 교리 :
매주일 10시 강당 회의실
- 성경 공부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성당
- 솔렉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미사 후 강당(솔렉성당 지하)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는 연령회(회장 박춘경 데레사 224-3335)로 연락주십시오.